## 다시 푸는 경서

### 진심직설(眞心直說) ⑪

四泯境存心 謂做功夫時
사민경존심 위주공부시
將一切內外諸境 悉觀爲空寂
장일체내외제경 실관위공적
只存一心 獨標獨立
지존일심 독표독립
所以古人云 不與萬法爲呂
소이고인운 불여만법위려
不與諸塵作對 心若着境
불여제진작대 심약착경
心卽是妄 今旣無境 何妄之有
심즉시망 금기무경 하망지유
乃眞心獨照 不得於道
내진심독조 불애어도
卽古人 奪境不奪人也
즉고인 탈경불탈인야
故有語云 上園花已謝
고유어운 상운화기수
車馬尙喧闐 又云 三千劍客
거마상병전 우운 삼천검객
今何在 獨計莊周定太平
금하재 독계장주정태평
此是泯境存心息妄功夫也
차시민경존심망식공부야

칼을 쓰고 있으니 천자의 칼을 쓰라고 했다. 즉 부국 강병의 정치를 펴면 온 나라가 다 복종해오니 이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천자의 칼이라고 했다. 이 말에 조문왕은 검술을 그치고 3개월간 밖을 나오지 않자 조문왕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3천 검객이 자살했다는 중국 고사가 있음. 여기서 3천 검객은 경계에 비유되고 장자는 마음에 비유되었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계는 없애고 마음은 둔채로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五泯心泯境 謂做功夫時
오민심민경 위주공부시
先空寂外境 次滅內心
선망적외경 차멸내심
旣內外心境俱寂 必竟妄從何有
기내외심경구적 필경망종하유
故灌溪云 十方無壁落
고관계운 시방무벽락
四面亦無門 赤裸裸淨灑灑
사면역무문 적나라정쇄쇄
卽祖師 人境兩俱奪法門也
즉조사 인경양구탈법문야
故有語云 雲散水流去
고유어운 운산수류거
寂然天地空 又云 人牛俱
적연천지공 우운 인우구
不見 正是月明時
불견 정시월명시
次泯心泯境息妄功夫也
차민심민경식망공부야

## 공부할때 경계 다 비우고 관찰하되 단지 한 마음만 홀로 드러내어라

넷째는 경계만 없애고 마음은 두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경계가 다 비고 고요하다고 관찰하되, 단지 한 마음만 홀로 드러내어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도 말하기를 '모든 법과 짝하지 말고, 모든 대상과도 상대하지 말라' 한 것이다. 마음이 만일 대상에 집착하면 그 마음은 즉시 망심이 되지만 이제 이미 대상이 없어졌다면 무슨 망심이 있겠는가. 이에 진심만이 홀로 비쳐서 도에 장애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경계는 빼앗되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 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동산에 꽃은 이미 다 졌는데 수레와 말이 오히려 붐비고 있네(즉 꽃이라는 경계는 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에 비유된 수레 소리는 남았다는 뜻임)' 하였고, 또 누구는 '3천 검객은 지금 어디 있는가. 홀로 계획을 세운 장주가 태평을 이룩했네(옛날 조문왕[趙文王]이 검술을 좋아해 3천의 검객을 두고 서로 싸우게 해서 해마다 백여명이 죽어갔다. 이때 장자가 조문왕에게 칼에는 천자의 칼, 제후의 칼, 서민의 칼이 있는데 지금 왕은 서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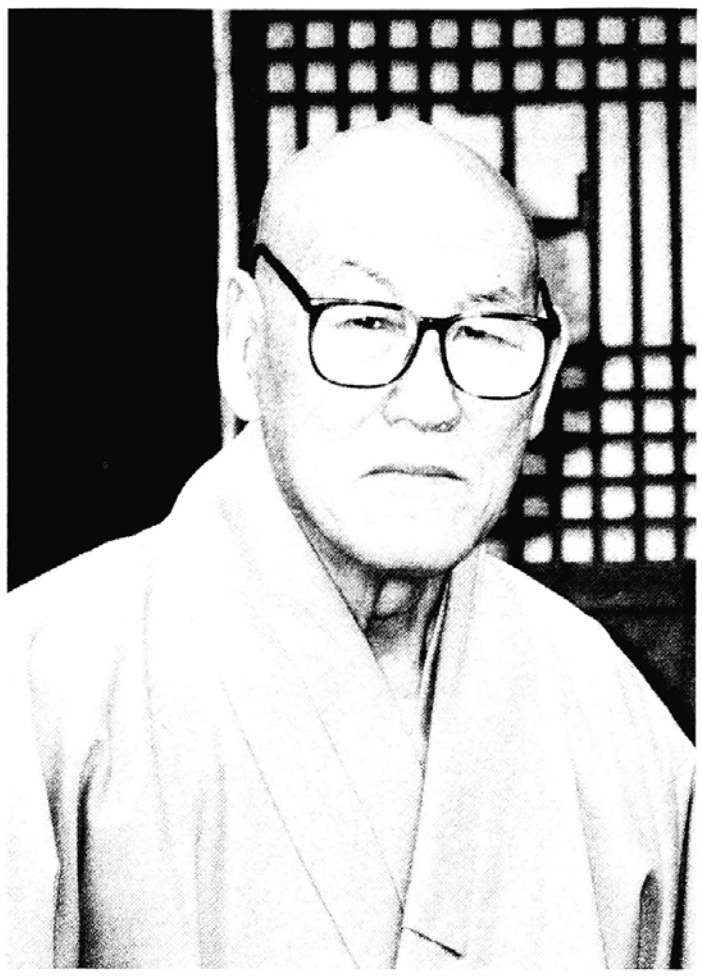
다섯째는 마음도 없애고 경계도 없애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먼저 외부의 대상을 비워 고요하게 하고 다음은 안으로 마음을 없애버린다. 이미 안팎으로 마음과 경계가 함께 비워졌다면 끝내 망심은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그러므로 관계스님은 '시방에는 벽도 없고 사면에는 문도 없으니, 발가벗어 깨끗하기가 물뿌린 듯하네' 하였으니 이는 조사께서 사람과 경계를 다 빼앗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말하기를 '구름 흩어지고 물 흘러가니 천지가 고요히 비어있구나' 하였고 또 '사람과 소가 다 보이지 않으니 바로 달밝은 때로다' 하였으니 이것이 마음도 없애고 경계도 없애어서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 큰스님 수행한담

# "비록 적게 가졌어도 염불은 부처님 만나려는 수행 불 · 보살 명호 마음에 채우면 일체 사량분별 끊어집니다

## 태허스님 〈횡성 봉복사 주지〉



· 1916년 충남 공주 生
· 36년 공주 갑사에서 호응스님을 은사로 출가
· 41년 공주 마곡사 전문 강원 대교과 졸업
· 44년 일본 오사카 관서 고등부기학교 졸업
· 49년~52년 충남 부여 무량사 주지
· 50년 충남불교 종무원 총무국장겸 이사
· 53년~58년 공주 갑사 주지
· 61년~79년 원주 구룡사 주지
· 95년~현 횡성군 봉복사 주지

이곳 강원도 골짜기에도 봄이 찾아 오려는지 이른 아침마다 맑고 투명한 새들의 노랫소리가 한결 정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제 한파로 얼어붙은 중생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봄이 오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많이 가진 이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을 돌보며 지켜주는 보살행을 펼쳐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족의 생계 유지에 빠듯하고 여유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여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펼치는 보살행의 근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힘은 의외로 소박한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번뇌가 고통에서 나오듯 보살행도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쓰라린 고통이기에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욕구가 바로 보살행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보살행의 원천은 책에 있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 바꾸어 말해서 그 삶속에서 겪는 무한한 고통이야말로 보살행의 동력인 것입니다. 사실 고통은 우리에게 한(恨)을 줍니다. 특히 그 고통이 타의로 생긴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신 분노와 진심, 개인적인 복수심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한이야말로 보살행을 발심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이라는 놈은 중생에게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전환되고 보살에게는 서원으로 바뀌어 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똑같은 원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지는지 혹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자신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돌이켜 생각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낼때는 한이 서원으로 변화됩니다. 자기가 겪는 고통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에만 빠져 있는 것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반면, 자기가 겪는 고통에서 나와 같은 고통으로 아파하는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자기 아픔을 해결하려는 바람 이상으로 타인의 고통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될 때는 서원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픔의 극복을 개인적인 한으로 끝내지 않고, 한(恨)의 사회화로 승화하는 그 밑바탕은 바로 더 아픈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 즉 보살의 서원인 것입니다.

나도 가끔 중생들에게 보살행을 잘 실천하고 살았는지 내 자신에게 되묻곤 합니다만 그때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렇게 먹물옷을 입고 불제자가 된지도 60여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벌써 여섯 번이나 바뀔 정도로 긴 세월입니다. 거의 매일 법주사를 다니시며 불공을 드리고 집에 오셔서도 맞이재를 지내실 정도로 불심이 돈독하신 할머니를 보고 자란 영향 때문인지 내 출가는 집안의 반대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습니다.

행자 생활 때부터 은사스님은 신도들에게 하심(下心)과 올바른 회향을 강조하셨어요. 무릇 중이란 신도들의 시주밥을 얻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공양이나 다과도 신도들이 다 먹은 후에 먹도록 가르치셨어요. 또 사찰에 들어온 삼보 역시 신도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것이므로 근본 마음을 헤아려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 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은사스님 또한 항상 이를 실천하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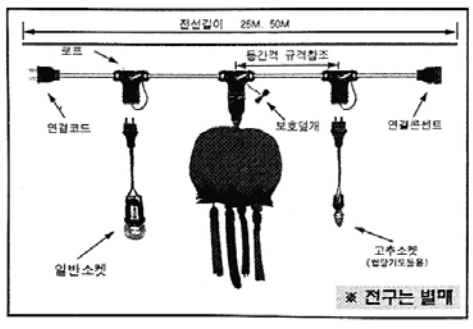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신도 두명이 은사스님을 마곡사로 찾아 왔어요. 방으로 스님을 찾아오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시더라구요. 그때 나는 다짐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늘 신도들을 살피며 그들 아래에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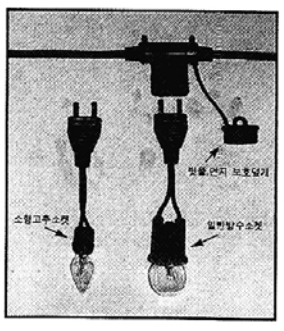
출가하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무량사 주지로 있을 때 사찰내에 광제원이란 고아원을 만들었지요. 그 당시가 1951년 6·25 난리통이라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나를 믿고 살아가는 고아들을 위해서 1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탁발을 했지요.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찰 재정이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도 복지 단체가 꽤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하면 우리 불교는 복지 단체와 사회 시설들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은 경제 한파로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나 실직자들에게 잠자리나 따뜻한 공양 한끼를 대접할 수 있는 보시행이 절실한 때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불국토 건설은 따로 외치지 않아도 저절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 신도들에게 참선보다는 염불을 많이 하길 권합니다.

염불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에 마음을 끊임없이 집중 시키는 것입니다. 염불(念佛)이라는 말에서 염(念)은 단순한 생각이 아닌 '집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로 마음을 집중시켜 번뇌와 망상을 없애고 일체의 고통을 소멸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염불의 참뜻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 · 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 · 사찰 · 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 · 납품)




**규 격**
⊙ 등간격 : 30㎝, 50㎝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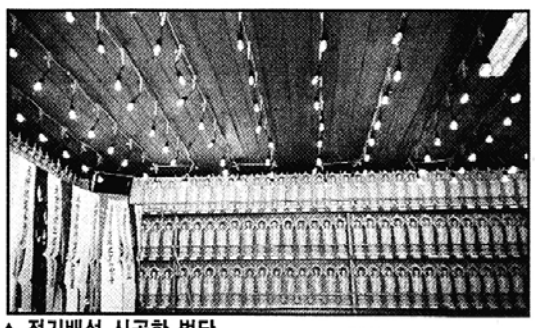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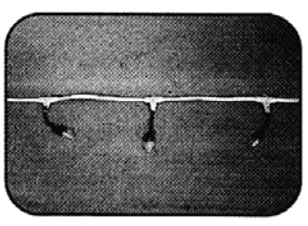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 · 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 · 호 남 지 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봉축연등 · 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 시공전선(회색) 제품 ■

■ 시공전선 전개도 ■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 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37-17호 H.P: 019)380-3786 FAX:02)322-3785
경기 북부 대리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7-4
TEL 0356)584-5663 FAX 0356)584-6300
H.P 011)758-7329